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몽골

### Mongolia

2020년3월17일 | 조사역(G3) 이미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564천 km <sup>2</sup> 	<b>인구</b> 3.3백만명 (2019 <sup>e</sup> ) 	<b>정치체제</b> 이원집정부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외교 
<b>GDP</b> 136.37억 달러 (2019 <sup>e</sup> ) 	<b>1인당GDP</b> 4,132.66 달러 (2019 <sup>e</sup> ) 	<b>통화단위</b> Tugrik (투그릭) 	<b>환율(U\$기준)</b> 2,663.54 (2019 <sup>e</sup> )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30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광업 부문은 몽골 GDP의 23.8%, 총수출 금액의 84%를 차지하여 몽골 경제를 이끌고 있음. 다만,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높음.
-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제3의 이웃 정책' 하에 일본, 인도 등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0. 3. 26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5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1991), 경제과학기술협정(1991), 문화협력협정(1991), 투자증진보호협정(1991), 이중과세방지협약(1993), 세관협력협정(199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96), 에너지광물자원협력협정(1999), 범죄인인도조약(2000), 형사사법공조조약(2000), 관광협정(2004), 사회보장협정(2007), 수형자이송조약(2008),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2010), 사증발급간소화협정(2012)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228,353	307,649	291,106	자동차, 기호식품, 건설광산기계
수 입	14,156	26,905	32,596	의류, 기타금속광물, 동광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654건, 487,705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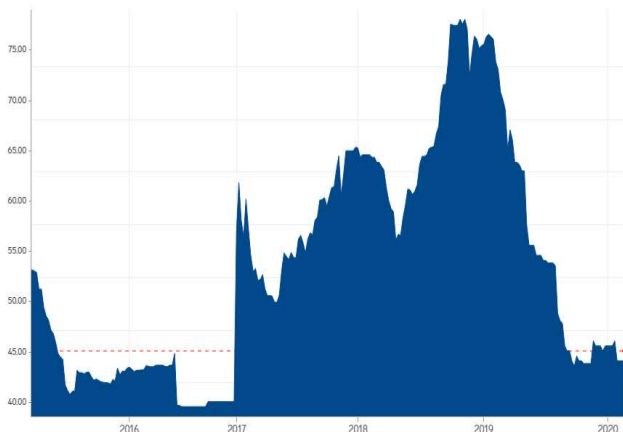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e</sup>
경제성장률	2.4	1.2	5.3	6.9	6.5
소비자물가상승률	5.9	0.5	4.6	7.7	9.0
재정수지/GDP	-5.0	-15.3	-3.8	2.6	0.6

자료: IMF, EIU

### 2019년 몽골 경제는 광물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6.5%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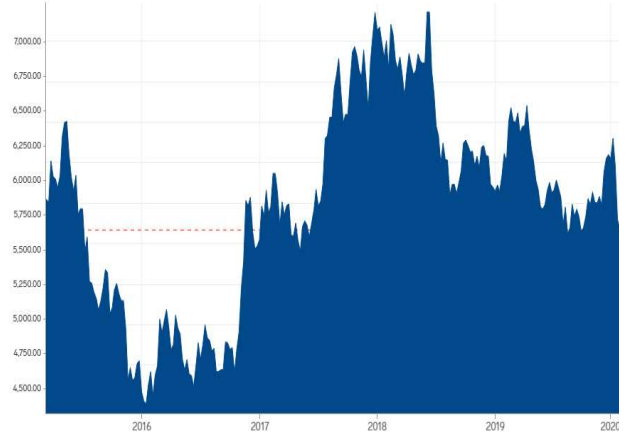
- 몽골 경제는 2016년 광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감,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광물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이후 광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자금 조달,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및 석탄 수출 증가, 내수소비 증대로 경기가 회복되어 2018년 6.9%의 성장을 달성함.
- 2019년 몽골 경제는 상반기 7.3%의 성장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는 듯하였으나, 석탄 등 광물 가격의 하락으로 2019년 전체 성장률은 6.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하락한 5.4%로 전망됨(IMF 5.4%, EIU 5.5%, IHS 4.4%).

<최근 5년간 석탄 가격 추이>



출처 : Markets Insider (USD/ton)

<최근 5년간 구리 가격 추이>



## 환율 상승,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9.0% 기록

- 지속적인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결과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7.7%) 대비 1.3%p 상승한 9.0%에 달함.
- 평균환율(미 달러당) : 2,140.29('16년) → 2,439.78('17년) → 2,472.48('18년) → 2,663.54('19년)
- UN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05개 농장에서 돼지 3,115마리가 살처분되었는데, 이는 몽골 전체 사육 돼지의 10%에 해당함.
-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몽골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8% 이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IMF 확대금융 프로그램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 추세 유지

- 몽골 정부는 자원개발과 연계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7년까지 재정수지가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2017년 5월 IMF로부터 4.3억 달러, ADB와 세계은행으로부터 30억 달러의 확대금융(EFF, Extended Equity Facility)을 지원받고, 원자재 수출 증가에 힘입어 광산업자로부터의 세금 징수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긴축정책 결과 2018년 이후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됨.
- 다만, 향후 석탄 국제가격 하락, 확대금융 프로그램(EFF) 종료 후에는 재정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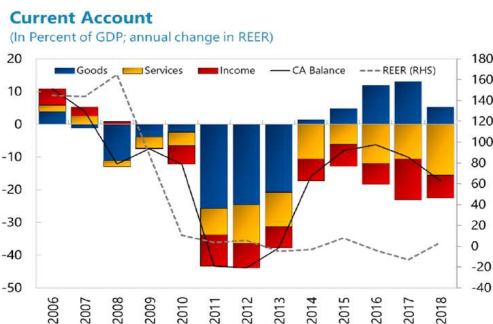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sup>e</sup>
경 상 수 지	-948	-700	-1,155	-1,903	-1,715
경상수지/GDP	-8.1	-6.3	-10.1	-14.6	-12.6
상 품 수 지	563	1,338	1,490	685	1,149
상 품 수 출	4,446	4,804	5,834	6,557	7,153
상 품 수 입	3,884	3,466	4,345	5,871	6,004
외 환 보 유 액	1,187	1,175	2,771	2,717	3,182
총 외 채	22,712	25,740	28,199	29,419	28,923
총외채잔액/GDP	193.3	230.7	246.8	226.1	212.1
D.S.R.	24.8	30.2	36.3	42.5	32.1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0%대 경상수지 적자 지속

- 몽골은 광물자원 수출이 전체 수출의 84%를 차지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를 갖고 있으며, 광물 자원 수출의 증가로 2014년 이래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8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자 관련된 자본재 수입의 증가 등으로 상품 수입이 늘어 흑자 폭이 다소 감소됨.
- 그러나, 광물자원 수출과 관련된 운송비 지출 등의 서비스수지 적자와 외국인투자 과실(이자, 배당금 등)의 대규모 유출 등의 소득수지 적자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출처 : Haver Analytics, IMF Country Report

- 중·단기적으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대 중국 수출 감소 추세, 서비스·소득수지 적자 지속 등의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외채상환능력

### 부족한 외환보유액으로 외채상환능력 취약

-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수입 증가로 인해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3.5개월 분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8년 104.5%에서 2019년 91.9%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광업 부문에 대한 거대 자본 유입, 과거 느슨한 재정 및 금융정책, 상업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중앙은행의 중국인민은행(PBoC)과의 통화스왑 등으로 몽골의 2019년 총외채는 약 289억 달러를 기록함.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1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대외부채 구성 : 기업 간 직접투자(Intercompany Loans) 92억 달러, 기업대출(Corporate Borrowing) 80억 달러, 몽골 정부 72억 달러, 중앙은행 20억 달러, 상업은행 23억 달러 등
- 특히 외화표시부채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여 투그릭화 가치 약세시 외채상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위험이 높음.
- 2019년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2018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30%를 상회하여 외채상환능력이 여전히 취약함.
- 외채원리금 상환액(억 달러) : 12.9('15) → 17.1('16) → 24.9('17) → 33.8('18) → 28.7('19)
- D.S.R.(%) : 24.8('15) → 30.2('16) → 36.3('17) → 42.5('18) → 32.1('19)

## 구조적취약성

### 광업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된 경제구조

- 광업 부문은 몽골 GDP의 23.8%를 차지하며 몽골 경제를 이끄는 주축 산업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자동차, 기계 및 장비류 등 공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 및 원자재 국제가격의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의한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높음.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몽골 GDP 구성은 광업 23.8%, 농·목축업 11.0%, 제조업 9.6% 등임.
- UN의 2017년 기준 제조업경쟁력지수 순위에서 몽골은 150개국 중 107위에 그침.
- 지난 5년 동안 전체 수출 규모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87%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 다변화의 추진이 필요함.

<몽골의 총수출 및 광물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수출	46.7	49.2	62.0	70.1	76.2
광물	36.8 (79%)	34.8 (71%)	49.3 (80%)	60.7 (87%)	63.8 (84%)

주: ( ) 안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광물 수출 비중  
자료: 몽골 통계청

### 목초지 황폐화로 인한 목축업 성장 저해

- 몽골은 목초지가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인구의 1/4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등 캐시미어, 육류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토지 사용 규정 및 체계적인 가축 사육방식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가축 방목,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등으로 목초지의 65%가 황폐화되어 목축업 성장이 저해되고 관련 종사자들이 도심으로 이주하고 있음.
- 몽골의 가축 수는 1990년 이래 약 3배로 늘어 현재 70백만 마리에 달함.
- 몽골은 해발 고도가 높고 기온의 연교차가 극심한 대륙성 기후로 타 국가 대비 3배나 빨리 온난화가 진행되고, 국토의 80%가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함.
- 2019년 9월 IMF는 목초지세(Pasture Tax) 도입으로 목초지 재생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가축 관리 방안 마련, 물류 체계 및 식품위생 기준 개선 등으로 캐시미어와 육류의 품질을 향상시켜 목축업을 육성할 것을 권고함.
- 2019년 12월 세계은행은 상업적 가치사슬(Value Chains) 구축을 통해 가축의 건강 및 생산성을 높이고 육류 및 유제품 등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자 몽골의 가축 상업화 프로젝트를 위한 30백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함.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2018년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몽골의 물류성과점수는 5점 만점에 2.37점으로 160개국 중 130위로, 내륙국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해상교통 인프라가 부재하고, 넓은 영토 대비 도로, 철도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한 점이 수출 증대와 교역국 다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함.
-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도 몽골의 인프라 수준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101위로, 특히 도로(112위), 항공(97위), 철로(96위), 전기공급(99위) 부문이 취약한 상태임.

## 성장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이 경제성장을 견인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구리, 석탄, 철광석, 금, 형석, 몰리브덴 등 80여종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석탄, 구리, 금,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이 높음.

< 몽골의 주요 광물 추정매장량 >

구분	매장량
석탄	1,750억 톤 (세계 4위)
구리정광	5,500만 톤 (세계 2위)
철광석	15억 톤
금	3,000톤
형석	1억 톤
몰리브덴	3만 톤 (세계 11위)
우라늄	8만 톤 (세계 13위)
원유	45억 배럴
세일오일	7,880억 톤
희토류	3,100만 톤

\* 자료 : 몽골 광업중공업부, KOTRA

- 몽골 정부는 2006년 광물법 개정 이래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을 차지하거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5개의 국가 전략광산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전략광산 지분을 몽골 정부가 반드시 보유하도록 법제화하고, 생산된 광물자원의 수송을 위해 2021년까지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 및 전략광산을 연결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임.
- 특히, 몽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집중된 세계적 규모의 오유 톨고이(Oyu Tolgoi) 금·구리 광산,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석탄 광산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정책성과

### 중-몽-러 경제회랑을 통한 물류 등 인프라 개발 추진

- 몽골은 내륙국가의 교통운송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기 위해 몽골의 '초원의 길\*',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포괄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CMRED,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을 추진해 교역, 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양국과의 교역 증대 등을 계획하고 있음.
- \* 중국 및 러시아와 고속도로, 전력망, 천연가스관, 송유관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프라 개발계획
- \*\*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계획
- \*\*\* 북한, 몽골, 중국 등과의 초국경 교통물류 협력을 포함하는 극동러시아 개발 정책
- 중국, 몽골, 러시아 3국은 2015년 7월 제2차 정상회담에서 CMREC 추진을 확정하고, 2016년 6월 제3차 정상회담에서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2017년 8월 실무회의를 통해 중앙철도회랑, 중앙도로회랑, 에너지 부문을 우선 추진 프로젝트로 선정함.
- 교통 인프라 13개, 국경 통과지점 현대화 1개, 무역 및 세관 4개, 환경협력 3개, 산업협력 2개, 에너지 협력 1개농업 협력 1개 등
- 중-몽-러 3국은 2018년 6월 제4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으나, 2016년 프로젝트 선정 이후 추진 속도 및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13년 만에 소득세법 대폭 개정

- 2019년 3월 몽골 국회는 법인세 부과 대상 매출규모 확대, 개인소득세 단일세율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2020년 1월 1일 발효). 또한, 분쟁 해결, 납세자료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세금징수 강화를 도모함.
- 법인세 부과 대상 매출규모를 확대(10% 법인세율 부과 대상 기준 매출액을 30억 투그릭에서 60억 투그릭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득에 따라 10~25%로 부과되었던 개인소득세율을 소득에 관계없이 10%로 단일하게 부과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기대됨.

## 해외차관 도입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며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 원자재 국제가격 약세, 외국인직접투자 이탈 지속 등으로 재정난을 겪던 몽골은 IMF 확대금융 프로그램 도입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석탄 국제가격 상승과 더불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성이 개선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최근 2년 간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9월 IMF Country Report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재정건정성이 개선되는 등 IMF 확대금융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총 11차 리뷰 중 5차 리뷰까지 완료되었으나, 몽골 상업은행의 자산건전성 리뷰(AQR, Asset Quality Review) 관련 증자 이슈\*로 확대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6차 리뷰가 지연되어 집행 또한 연기됨.
- \* 모든 정량적·구조적 기준들은 충족하였으나, 몽골 중앙은행이 AQR에 따른 자본 부족액 조달에 실패한 상업은행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사전 조치'를 미충족함.
- 외국인직접투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42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상당 부분은 광산개발 투자에 투입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FDI 순유입액 (백만 달러)	4,272.5	2,059.7	337.8	94.3	-4,156.4	1,494.4	2,173.7
전년대비 증감률(%)	-	-51.8	-83.6	-72.1	-4,506.7	136.0	45.5

출처 : UNCTAD

## 정치동향

### 총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

- 바툴가 현 대통령은 민주당(Democratic Party) 출신이고 총리는 집권 인민당(Mongolian People's Party) 소속이나, 둘 다 애국주의와 자원 민족주의 성향으로 정치상황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임. 다만, 몽골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총선과 대선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어 2008년 이후부터 4년 주기로 교체되는 몽골 정부의 특성상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인민당을 제치고 승리하여 제1당을 차지하였으며, 2013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엘벡도르지 당시 대통령이 50.9%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 이후 민주당 집권기(2012~16년) 동안 외국인투자 유입 급감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정당 내 계파 간 갈등에 따른 민심 이탈로 지지도가 하락함에 따라, 2016년 6월 총선에서는 인민당이 의회 내 절대적인 의석(76석 중 65석 차지) 확보로 집권 정당이 됨.
- 그러나 2017년 상반기 IMF 확대금융제도 프로그램(EFF) 도입 및 긴축 재정정책 실행으로 인민당의 대중적 지지도가 하락하여, 동년 실시된 대선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바툴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20년 1월 바툴가 대통령의 제안으로 몽골 의회가 포퓰리즘 정책인 '연금대출탕감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권은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 노인들의 과도한 연금대출과 높은 이자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금대출을 일회적으로 탕감시켜 주는 연금대출탕감법의 시행은 정부의 부채비율 증가, 인플레이션, 투그릭화 약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19년 만의 헌법개정, 오는 5월 25일 발효 예정

- 2019년 11월 14일 몽골 의회는 정부의 안정성과 지속성 강화, 국회의 책임성 강화, 총리의 권한 확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권의 강화, 천연자원 수익의 대 국민 귀속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2020년 5월 25일 발효).
- 국가의 주요 대형 광산 사업(오유 톨고이, 타반 톨고이 등), 국책사업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던 이유가 잦은 정권 교체를 야기하는 몽골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에 그 원인이 있었던 바, 금번 개정으로 인해 정부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기대됨.

## 사회동향

### 만연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스캔들

- 2018년 전 총리의 오유 툄고이 광산 사업권 부여 관련 뇌물 수수, 국회의원의 중소중견기업 발전기금 부정대출 사건 등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관련한 법적 통제장치가 미약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편임.
-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몽골을 이행취약국가(grey list)로 분류하고 2020년 2월에도 동 지위를 유지함.
-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몽골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06위이며, 평점은 100점 만점에 35.7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경제적 불균형으로 빈곤과 실업 문제 심화

-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도시 및 계층에 집중되어 계층 및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각함.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은 사회 인프라 개발이 미흡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사회계층 상승의 기회가 제한되기도 함.
- 2019년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몽골은 189개국 중 92위로, 인구의 29.6%가 빈곤선\*\* 이하로 집계되었으며, 지니계수\*\*\*도 0.32로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높음.  
\*UN(2019년) \*\*ADB(2016년) \*\*\*세계은행(2016년)
-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비숙련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총 실업률은 9.0%에 달함.
-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몽골의 노동 숙련도는 141개국 중 119위로 낮은 수준임.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성형탄(refined coal) 도입

- 몽골 정부는 2019년 5월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 원탄(raw coal)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성형탄(refined coal)\*으로 대체할 것을 명령함. 동 조치로 대기오염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 성형탄 : 석탄가루를 다른 재료와 섞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연탄, 조개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몽골은 기존 난로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조개탄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 수도인 울란바토르 게르(Ger)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영하 20도 이하의 겨울철(10월~이듬해 3월) 난방을 석탄에 의존하는데, 이로 인한 원탄 소비량은 연간 1.2백만 톤으로 도시 대기오염 원인의 80%를 차지함.
-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2018년 기준 몽골 전체 인구의 46%인 약 149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울란바토르 시민 중 60%가 난방, 상·하수도 등 기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게르에 거주하고 있음.
- IQAir Group 및 그린피스(Green Peace)가 공동 발표한 2019 World Air Quality Report에 따르면 몽골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국가이고, 울란바토르 또한 델리(인도), 다카(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임.

## 국제관계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

- 몽골은 최대 수출시장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과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으로도 의존도가 높음. 또한 중-러 양국은 전통적으로 몽골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소 경쟁적인 구도에 있어, 몽골은 중립노선을 견지하며 양국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옴.
- 중국-몽골-러시아 3국은 최근 4차례('14.9월, '15.7월, '16.6월, '18.6월)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몽-러 경제회랑(CMREC)에 대해 논의함.
- 몽골에서 생산된 석탄, 구리, 몰리브덴 등 주요 광물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2019년 몽골 전체 수출액의 약 89.1%가 중국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하여 중국 내 광물 수요가 몽골 경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몽골의 1위 교역국으로, 2019년 몽골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89억 달러로 몽골 전체 교역규모의 64.4%를 차지함.
- 아울러 몽골로 유입되는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16%(2018년 기준)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음. 몽골의 광업 부문 외에도 철도·도로 건설, 전력 시스템 구축 등에도 중국의 투자가 이어짐.
-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몽골의 2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28.2%를 차지하며, 주 수입품은 석유 등 에너지 제품임.

###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한 타국과의 교역 확대 노력

- 몽골은 '제3의 이웃 정책'(Third Neighbor)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국, 미국, 일본, 인도 등 제3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다자외교를 추진 중임.
- 미국과는 2014년 '미국-몽골 안보관계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중임.
- 일본과는 2015년 2월 최초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2016년 6월 발효)한 데 이어, 울란바토르 신공항 건설을 위한 3.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음.
- 한국과는 2016년 7월 한국과 EPA 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함.
- 인도로부터는 12.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아 몽골 도르노고비 사인산드 부근에 석유화학 정유소를 건설할 예정임.
- ADB가 추진하는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통해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함.
- 호주, 캐나다 등은 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몽골에 진출하고 있으며, 독일, 터키 등은 가전, 생활용품 등을 러시아 철도를 통해 몽골에 수출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나, 구제금융 등을 통한 높은 대외차입의존도 지속

- 2019년 9월 30일 기준 몽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1,455백만 달러(단기 63.5백만 달러, 중장기 1,391.5백만 달러)이며, 이 중 6.6백만 달러의 중장기채무가 연체되어 연체비율은 0.4%로 미미하여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편임.
- 한편, 몽골은 1991년부터 총 6차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록, 외환 보유액 고갈 등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국제기구와 여러 채권국들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등 외채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6등급
Moody's	B3	B3
Fitch	B	B

### OECD,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기존 신용등급 유지

- OECD와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재정수지 개선노력, 성장잠재력 및 과도한 부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리스크, 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함.

- 2019년 몽골 경제는 광물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6.5%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도 5.5%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 비중 및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각각 212.1% 및 32.1%에 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외지급능력이 여전히 취약함.
- 자원개발과 연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지속하였으나, IMF 확대 금융 지원 및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016년 -15.3%에 이르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9년 0.6%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임.
- 2016년 총선에서 인민당이 절대적인 의석 수를 확보한 이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총선과 대선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몽골을 이행취약국가(grey list)로 분류하는 등 몽골 내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함.